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 303호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홍보실
주소 110-793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대표전화 1577-7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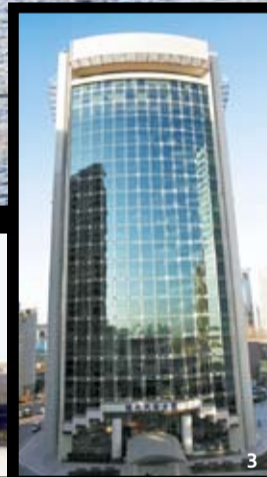
행복한 소통의 시작, 현대건설 이야기

준비된 기업에 열릴 중국이란 大門



Photo News

국토면적 세계 4위, 인구 세계 1위, GDP 세계 2위. 지난 9월 3일 어마어마한 규모의 열병식으로 다시 한번 차원이 다른 국격을 과시한 중국은 아직도 급성장 중이다. 2014년 한·중 자유무역 협정으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중국. 세계 기업들은 중국의 큰 門이 활짝 열릴 그날을 기다리며 본격적인 대륙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 우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2005.09~2011.08) 2 광저우 충명사관 (2011.04~2013.02) 3 베이징 현대자동차 빌딩 (1997.09~2000.09) 4 다렌 희망 빌딩 (2001.01~2006.09)

“현대건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건설기업”

ROBECOSAM Sustainability Award Industry Leader 2015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서 세계 건설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 올라

스트라바(Strabag, 오스트리아 1835~), 스칸스카(Skanska, 스웨덴 1887~), 호치티프(Hochtief, 독일 1874~), 베크텔(Bechtel, 미국 1898~), 방시(Vinci, 프랑스 1899~).

세계 10대 건설사 중 100년 이상의 장구한 역사를 지닌 건설 분야 톱 브랜드들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주력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이들을 제치고 지속가능한 건설사 1위에 올랐다.

최근 발표된 '2015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DJSI) 평가'에서 현대건설은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 세계 1위에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201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이 부문 1위를 기록 중이다. 이 기록 자체도 세계 건설업계에 선 최조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사인 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S&P Dow Jones Indices)와 투자평가사인 스위스 '로베코샘(RobecoSAM)'이 기업의 경제 성과와 환경,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6년째 발표하고 있는 지속가능투자지수. 전 세계 59개 업종에서 시가총액 상위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해 상위 10%에 오른 기업에만 'DJSI WORLD' 지수를 부여하고 있다.

‘환경관리’ 부문 최고점

현대건설은 경제 85점, 환경 95점, 사회 89점(이상 100% 환산)을 받아 평균 90점의 최고점수를 얻었다. 건설업종의 평균점수는 57점.

현대건설이 특히 환경 부문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은 환경사업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폐기물 배출 및 자재 재활용 목표를 수립해 전사 차원의 폐기물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폐기물 배출량의 경우 2013년 61만3302t에서 2014년 45만2021t으로 26%나 줄었다.

현대건설은 폐기물 관리지침을 환경관리 기준집에 포함해 전 세계 현장에 배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 환경경영시스템을 적용하고,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14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인 ISO50001, 탄소경영 인증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Korea를 획득하는 등 환경 경영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DJSI World’ 6년 연속 편입

현대건설은 'DJSI World'에 처음 편입된 뒤 6년 연속으로 지수를 부여받았다. DJSI 6년 연속 편입은 세계 건설업종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지속가능경영에서의 쾌거는 단기 경제지표에 급급하기보다 진정성 있게 투명한 기업경영에 힘쓰고 친환경적 사업 운영, 협력사 상생과 활발한 사회 공헌 등을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undai E&C ranked most sustainable builder in the world

Strabag (Austria), Skanska (Sweden), Hochtief (Germany), Bechtel (US) and Vinci (France) with over a century of history are all world leading builders in the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Hyundai E&C, part of the world's fifth-largest automotive conglomerate Hyundai Motor Group, has been ranked the no. 1 builder in sustainability by beating the top global names.

Korea's primary builder has been recognized by the latest 2015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as the Group Leader in the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sector.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same position three years in a row since 2013, which is the first in the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The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based DJSI marks 16th anniversary this year. The ranking is based on a thorough analysis of corporat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performance. Easy year, the largest 2,500 global companies in 59 industries by market capitalization are evaluated by S&P Dow Jones Indices and RobecoSAM, and only 10 percent of them are selected for the DJSI World.

The reason why Hyundai E&C has obtained a near perfect score in the environment sector is that it is highly recognized in terms of systematic management and strategies for environment-related projects.

The top ranking marks the sixth year in a row since Hyundai E&C has been included in the DJSI World rating.

NEWS

- 지역사회의 희망, 청소년의 미래를 후원하다
- 2015년 하반기 기술전략회의 열려
- 싱가포르 파시르 리스 콘도미니엄4 현장 준공

그룹사 소식

현대자동차그룹, 제8회 제주 해비치아트 페스티벌 개최

현대자동차그룹이 15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한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와 '문화 융성 활성화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그룹은 소외계층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나눔을 통한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과 공연유동 활성화를 이룰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자동차그룹은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화 지원과 나눔 사업을 통해 문화 융성이 활성화되는 데 지속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이와 같은 문화 융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 해비치아트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 필리핀 지역발전소 계약 체결

현대엔지니어링이 15일 필리핀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 First Gen Corporation 산하의 EDC(Energy Development Corporation)사와 7400만 달러 규모의 지역발전소 건설을 위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리처드 탄토코(Richard Tantoco) EDC 사장과 하중현 현대엔지니어링 전력플랜트 사업본부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필리핀 루존(Luzon)섬, 소르소곤(Sorsogon)시에 위치한 바콘마니토(Bacon-Manito) 지역발전소로 31MW급 지역발전소 4호기를 짓는 공사다. 공기는 착공 후 25개월.

현장·부서 소식

광고 힐스테이트레이크 준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고 힐스테이트레이크 현장이 14일 준공했다.



광고 힐스테이트레이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3개 동 규모로 오피스텔 559실을 갖췄다. 2012년 9월 착공한 현장은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처럼 환상형과 타워형을 섞은 단지형 주거시설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행정타운, 에듀타운, 범조타운, 비즈니스파크, 광고호수공원 등 핵심 시설이 밀집한 중심 지역에 위치한 데다 수도권 광역교통버스인 M버스가 단지 앞 정류장에서 정차해 교통이 편리하다. 입주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 표창

광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현장의 하정호 부장대우와 안재홍 부장대우가 지난 2일 광주광역시로부터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촌 아파트로 활용된 광주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현장은 지하 3층~지상 15, 33층 아파트 35개 동 3726가구 규모다. 우리 회사는 건설부문 공식 후원사로 선수촌 내 선수와 임원단, 심판진을 위한 숙소 마감공사와 부대시설 건립을 지원했다.

지역사회의 희망, 청소년의 미래를 후원하다

19일, 제2기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발족

우리 회사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장기 교육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19일부터 양일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숲속마을' 수련원에서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2기의 발족식을 가졌다. 교육장학전문 사회복지기관인 '아이들과미래'와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는 ▶멘토링 프로그램 소개 및 기본 소양 교육 ▶전문강사 강연 ▶멘티 청소년 진로·적성검사 시행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우리 회사가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시작한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프로그램은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건설업 진

로를 희망하는 대학생, 우리 회사 직원이 3인 1조를 이뤄 활동한다. 특히 단순 조별 매칭이 아닌 멘티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에 맞춰 해당 진로분야 전공의 대학생과 직원을 선발해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실질적인 직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멘티 청소년, 대학생 봉사자, 임직원 봉사자 등 총 48명이 참여해 약 10개월간 활동을 펼친다. 우리 회사가 참여하는 멘토링 분야는 건축(이공계), IT, 재무/회계, 경영, 법무, 홍보 등 총 6개 영역이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단기 멘토링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성장해 원하는 일을 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19일부터 1박2일간 열린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발족식.

장기 교육 프로젝트"라며 "한창 꿈과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적·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말 해단식을 가진 1기 청소년 멘티들은 주요 과목 성적 향상, 진로 확정, 자격증 취득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Hope in community: Hyundai E&C sponsors future of teenagers

Our company is spurring the effort to implement a long-term CSR project aimed to help underprivileged teenagers in our community realize their dreams and hopes.

Hyundai E&C held an opening ceremony to kickstart the second "Hillstate Dream Mentoring Volunteer

Team" in Dobong Forest Ville located in Dobong-gu, Seoul, on September 19 for two days. Together with the Kids and Future Foundation, a non-profit organization supporting children in need, our company offered a variety of programs such as the introduction session for mentoring programs/

basic training, lectures by experts, and career and aptitude tests for mentees.

One group consists of three participants including one teenager living in Jongno-gu, Jung-gu or Dongdaemun-gu, one college student who pursues care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one employee of Hyundai E&C. The mentoring program is the first of its kind in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This year, 48 participants including mentees, college students and volunteers from Hyundai E&C will carry out a wide range of activities for about 10 months.

2015년 기술전략회의 열려

우리 회사가 10일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기술전략회의'를 열었다.

정수현 사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기술전략회의는 각 사업본부 본부장 및 중역, 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기술경영체계 확립과 기술전략 개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연구개발본부장의 기술전략회의 브리핑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R&D 혁신전략 ▶실별 R&D 추진전략 ▶R&D 혁신 기반 구축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정수현 사장은 총평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뒤 "전사 차원의 긴밀한 협력 아래 R&D 성과를 바탕으로



정수현 사장의 주재로 진행된 기술전략회의.

한 기술 마케팅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일관된 기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기술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올해

는 전사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업본부 본부장 인터뷰 ▶글로벌마케팅본부·연구개발본부 공동세미나 ▶기술전략실장회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9월 핵심가치 인문학콘서트



우리 회사가 17일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본사 대강당에서 '9월 핵심가치 인문학콘서트'를 열었다.

5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최근 중동 정세와 이슬람 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강연을 통해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 역사 속 이슬람과 우리나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핵심가치 인문학콘서트'는 '더 행복한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인문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설한 강연 프로그램이다. 그간 박용현 TBWA 크리에이티브 대표, 김상근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임직원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파시르 리스 콘도미니엄4 현장 준공

우리 회사가 시공한 싱가포르 파시르 리스(Pasir Ris) 콘도미니엄4 현장이 지난 1일 준공했다.

싱가포르 최대 부동산 투자회사인 CDL(City Development Limited)의 자회사가 발주한 파시르 리스 콘도미니엄4현장은 총공사비 1억9400만 달러 규모로 2012년 4월 착공했다. 현장은 연면적 9만㎡에 지하 1층~지상 최고 14층 17개 동 총 892세대의 주거시설과 수영장, 클럽하우스 등을 갖췄다.

총 5개 파셀(PARCEL-단지의 개념)로 나뉘어 발주된 파시르 리스 콘도미니엄 프로젝트에서 우리 회사는 총 3개의 현장을 맡아 지난 2012, 2013년 1, 2차에 이어 이번 공사도 성



2012년 착공 후 39개월만에 완공된 파시르 리스(Pasir Ris) 콘도미니엄4 현장 전경.

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현장 관계자는 "발주처가 수많은 설계변경을 요구한 까다로운 공사였지만 전 임직원이 합심해 공기 내 공

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며 "이번 공사를 계기로 향후 싱가포르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알립니다

남임부부 시술비 절감을 위한 병원 제휴 안내

우리 회사가 남임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서울시 중구 목정동 소재의 산부인과 전문 '제일병원'과 진료비 감면 협약을 맺었다. 9월 14일 이후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환자 부담 총액의 20%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전담 창구 02-2000-7071-2

진료시간 평일 8:30-17:00
토요일 8:30-12:00

ISSUE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의 최신 뉴스를 (사보신문)에 연재합니다. 경제·건설·문화 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뉴스를 통해 생생한 비즈니스 이슈 및 영어 표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자체 편집했음을 알립니다.

Exhibits aim to show the timelessness of classic Korean clothing

Fashions are fleeting, but traditional styles endure

Sep 17

Western attire has now become the everyday wear of Korean people, and it is difficult to spot hanbok, or traditional Korean clothing, on the streets. These days people only wear it for special occasions - first birthdays, weddings and for some, the Chuseok (harvest festival) holiday, which falls on Sept. 27 this year.

To remind Koreans of the beauty of traditional clothing that has largely vanished from wardrobes prior to the upcoming national holiday, and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the Hanbok Advancement Center, an affiliate of the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KCDF), kicked off a special exhibition titled "Hanbok, Our Beloved" on Tuesday at the Blue House Sarangchae, the visitor center for the presidential residence in central Seoul. The exhibition runs until Nov. 1.

"Through looking at the use of different fabrics, materials and patterns, I believe visitors to the exhibition will be able to witness the flow of the cultural and social trends in hanbok for the past 70 years since Korea's liberation," said Choi Jeong-cheol, director of the KCDF. "Many peo-

ple comment on hanbok, saying it is beautiful or it is too uncomfortable as everyday wear, so the Hanbok Advancement Center has been making efforts to think of ways to promote our beautiful traditional costume and bring it back into our daily lives."

Although Sarangchae's Special Exhibition Hall is quite small, the Hanbok Advancement Center decided to display nearly 90 different hanbok for the exhibition, saying that they "show the changes and trends in hanbok in the past 70 years since Korea's liberation."

The exhibition is divided into six sections. It starts with a display of three hanbok worn by President Park Geun-hye

"For important events in and outside the country, President Park often wears hanbok," said Seo Bong-ha, artistic director of the exhibition. "By being seen wearing hanbok on such important occasions, she has contributed in disseminating the beauty of our traditional clothing."

Other garments worn by famous people are also on display, such as the fur vest former President Syngman Rhee wore over the top of his hanbok during winter and flower-print



hanbok worn by his wife, Francesca Donna Rhee. There is also a bright red hanbok worn by Miss Korea Kim Seong-heui during the 1977 Miss Universe beauty pageant that won the Best National Costume Award.

Other unique hanbok can be spotted at the exhibition including the "88 Seoul Olympic Hanbok," which features the five-colored Olympic rings on a pure white jeogori and chima (skirt) to represent the Korean people, once called the "white-clad folk" for their typically white hanbok.

After the Korean War, nylon, a novel material, was introduced to bring about a new wave of chang-

es in the style of dress, according to Seo. Moreover, in the 1960s expensive fabrics that could previously only be imported from Japan and China, such as brocade and velvet, began to be manufactured in Korea.

한국 전통 의복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특별전 유행은 순간이나 전통은 영원하다

이제 서구식 옷이 한국인들의 일상복이 되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길거리에서 보기란 쉽지 않다. 요즘에는 돌잔치나 결혼식, 9월 27일로 다가온 추석과 같이 특별한 날에만 한복을 입는다.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옷장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한국인들에게 되새기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기관인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하는 특별전 <한복-우리가 사랑한>이 9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린다.

한복진흥센터 최정철 센터장은 "이번 전시회의 방문객들이 서로 다른 직물, 소재, 문양의 쓰임을 들여다보면 광

복 이후 지난 70년간 한복의 문화사회적 변천사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한복이 일상복으로 입기에 불편하지 않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평하는 사람이 많아 아름다운 전통 복식을 홍보해 한복을 다시 일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복진흥센터는 사랑채 특별전시장이 협소하긴 하지만 광복 이후 70년간 한복의 변천사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특별전에서 90여 점에 가까운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다.

총 여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었던 세 종류의 한복으로 시작한다.

서봉하 예술감독은 "박 대통령은 국내의 주요 행사 시 주로 한복을 애용한다"며 "중요한 행사에서 한복을 착용해 한국 전통 복식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겨울 한복 위에 덧입었던 털 조끼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생전에 입었던 꽃무늬 한복 등 유명 인사들이 입었던 한복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또 1977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최고 전통 의상상을 수상한 미스 코리아 김성희의 선홍색 한복도 전시된다.

하얀 한복을 즐겨 입어 '백의민족'이라 불린 한국인을 상징하기 위해 순백의

치마저고리에 오색 올림픽 상징을 담은 '88 올림픽 한복'을 포함해 독특한 한복도 선보인다.

서봉하 예술감독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신소재인 나일론이 소개되면서 한복 스타일에 변화의 새 물결이 일어났다.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양단과 벨벳 등이 이전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됐던 비싼 원단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되기 시작했다.

▼ Key expressions
inauguration: 취임(식)
garment: (격식) 의복, 옷
bring about: ~을 유발(초래)하다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Picture Description 형



Q Please describe the picture.

SAMPLE ANSWER

I'm glad to describe this picture. This is fitful picture for today.
In the picture, woods turn red and yellow. I can guess it is autumn by tree's color. Some leaves are fallen down on the ground.
There is a wooden house on the right side. It has dark roof and gray walls. It seems too old to use. The door is opened and I cannot see the inside. I think the house is not used for a while.
That's all I can see in the picture. Thank you for listening.

Picture Comparison 형



Q Please compare these two pictures.

SAMPLE ANSWER

I'm pleased to compare these two pictures, because I usually enjoy them.
On the left side, I can see a cup of coffee in a white cup with some coffee beans. I can guess the coffee is espresso because of its color. It maybe doesn't contain any milk.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cup of tea in a glass with some herb leaves. The herb is maybe a mint. The tea has golden yellow color and it looks very hot. My favorite one is coffee. I love its bitter taste and cozy smell. I love to enjoy it without any sugar or syrup.
I also like tea too. It has its own smell and taste is so clean. But I need more bitter taste than the tea. So I like coffee more than tea.
That's all I can say about two pictures. Thank you for listening.

자료 제공 : SLI 교육원(02-541-7219)

Companies urged to invest in 'open door' Iran

Sep 17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orea Eximbank) held a joint Iran investment seminar on Tuesday with New York-based law firm Shearman & Sterling. More than 50 representatives from major corporations attended to hear about the changing investment environment and the opportunities in the Middle Eastern nation, the bank said on Wednesday.

Big-name construction-to-trading companies including Dae-



lim Industries,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Doosan Heavy Industries and LG International participated in the seminar as Iran prepares to open its doors to the world following prolonged sanctions.

Topics covered during the seminar included details on the framework of the nuclear deal, financing options and the legal environment. Officials from the companies also discussed Iranian business strategies, Korea Eximbank said.

The Iranian government plans to place plant and infrastructure orders worth around \$160 billion next year, and the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NIOC), in particular, is expected to place over 45 orders spanning crude oil to natural

gas industries, John Inglis, a legal counselor from Shearman & Sterling, was quoted as saying.

Iran, with a population of 77 million, is the second-largest market in the Middle East.

Prior to U.S.-led sanctions on the country, many Korean construction and heavy-industry companies had a presence there. The nation accounted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orders received by Korean firms, the sixth largest globally, according to Eximbank.

SPORTS

Son finishes dominant week with Spurs

Sep 22: After dishing out Korean food to his new Tottenham teammates, Son Heung-min served up his first Premier League goal.

The South Korea forward capped a dynamic display against Crystal Palace on Sunday by completing a second-half counterattack to seal a 1-0 victory at White Hart Lane.

With shot-shy Harry Kane looking short of confidence and yet to find the net in the league, Son's instant impact is taking the heat off last season's top scorer.

"I hope every week is like this," Son said. "It's amazing, really another style to the Bundesliga - [more] power and speed and I like this. I'm really happy here to play."



REPORT

2000년대 현대건설을 대표하는 국내의 역작을 소개합니다. 현대건설의 역사를 바로 알고 '글로벌 톱 건설사'로의 미래 비전을 꿈꿔 보시기 바랍니다.

New H+ Story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우시공장(HYNIX)

북쪽으로는 양쯔(揚子)강, 남쪽으로는 타이후(太湖)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거대 소비도시인 상하이(上海), 서쪽으로는 국제 공항이 있는 난징(南京)이 있다. 수려한 자연 환경과 위치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지닌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에는 우리 회사가 건설에 참여한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우시 공장'이 있다.



'중국의 실리콘밸리'에 현대의 이름을 알리다

4단계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

중국 3대 담수호인 타이후가 위치하고 있는 중국 장쑤성 우시는 한국인에게 낯선 도시다. 산업화가 한창인 중국에서는 '작은 상하이'로 불린다. 경공업이 발달한 우시는 경제 규모면에서 중국의 6, 7대 도시 중 하나였다. 중국이 우시를 포함해 난징, 상하이를 거쳐 형성된 장강(長江)의 삼각주를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집중 육성하면서 우시는 중국의 IT산업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변모했다.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우시공장 역시 이곳에 위치해 있다.

우리 회사는 2005년 8월 30일 하이닉스 반도체로부터 중국 우시공장 신설 공사가 운데 1억4200만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장쑤성 우시 시 기술개발구 내에 한국 하이닉스 반도체와 미국 ST Micron사, 우시 정부가 2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해 200~300mm 웨이퍼 생산라인 공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우리 회사는 공장의 핵심 시설인 클린룸(Clean Room·14만2149㎡, 4층 규모)과 오피스 정화시설 공사를 맡았다.

클린룸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뿐만 아니라 온도·습도·조도·기류·공기압 등 수많은 요구 규정에 따라 환경적으로 제어되는 밀폐된 공간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유해가스나 진동, 소음도 제어되는 특수 공간으로, 반도체 칩의 모태인 웨이퍼(Wafer)가 생산되는 곳이다.

공사는 총 4단계로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2005년 9월~2006년 9월 1단계를 완료한 후 발주처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변경 및 부대시설(완제품 창고·Entral Utility Building 증설) 확충을 위해 추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2006년 7월~2011년 8월까지 2~4단계에 걸쳐 공사를 진행했다.

타사 공정까지 체크하며 모든 공정 행거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우시공장의 계약 구조는 골조 및 일반 마감을 수행한 중국 현지 업체와 클린룸을 짓는 우리 회사 및 협력업체, 발주처에서 직할주한 장비 업체로 나눌 수 있다. 상호 계약관계가 없는 3개 그룹이 한 장소에서 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다.

클린룸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기술력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반

도체 경기 특성상 자칫 공기가 지연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막대한 비용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공사 초기에는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았다. 현지 업체와의 경쟁, 낯선 대관 업무,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은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특히 반도체 공사를 잘 모르는 현지 업체들은 공기 준수가 반도체 업종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런 인식 부족은 골조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 클린룸 마감공사 작업 일정에 차질을 발생시켰다. 이에 발주처와 PM(Project Manager)은 우리 회사에 전반적인 공정 관리 및 타사 지연분 공사 수행을 요청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현장 전체를 관리하고, 타사 공정 현황을 체크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우여곡절은 이뿐이 아니었다. 공사 착수 후 실제 시공 도면이 나오기까지 50여 일이 걸렸고, 뒤늦게 확정된 도면이 시공 중에 변경되기도 했다. 또한 공사 수행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청정 관리를 해야 웨이퍼 생산 시 초기부터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는데, 현지 업체는 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현장 직원들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을 능동적으로 꾸려 나갔다. 발주처 및 설계사와의 꾸준한 회의를 통해 도면을 조속히 확

정하려 노력했고, 공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지 협력 업체에 우리 직원들의 풍부한 클린룸 공사 경험 및 기술력을 전수하며 모든 공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겼다. 그 결과 우리 회사는 발주처와 약속한 공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 안전관리에 집중해

모든 공사가 그러하듯 안전관리는 현장의 기본이다. 현장은 매일 오전 6시30분 안전 교육과 국민 체조를 하며 일과를 시작했다. 연일 계속된 돌판 작업과 공사 후반에는 스몰(Smock)복을 입고 작업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우리 직원들과 현지 업체 모두 힘들어했다. 그러나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현장 환경 탓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우리 회사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30~50명가량의 직영 안전 요원을 현장 곳곳에 배치했다.

마지막까지 품질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우시공장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글로벌 전초 기지이자 현대건설의 대표적인 중국 프로젝트로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클린룸 내부 전경.

interview 그레그시절

동료애와 열정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직원들의 우직한 심지와 탁월한 전문성 덕분이었다. 쉽지 않은 공사 과정 덕분에 더욱 돈독해졌다는 직원들을 만났다.

중국인 근로자 인식 전환하려고 노력해

최기선 과장(이하 최): 2005년 10월~2007년 5월, 2010년 1~7월까지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우시공장 1, 3단계 공사에 참여했어요. 전기 시공 담당으로 가설 전기부터 클린룸 마감공사까지 전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공 업무를 담당했는데, 패스트 트랙(Fast Track·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공법)으로 진행된 데다, 돌판공사까지 하면서 아주 악명(?) 높은 현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전태연 대리(이하 전): 저는 현장에서 건축공무로 대분사 업무(하도급 계약, 월별 보고)와 대발주처 업무(기성·주간·월간 보고)를 했어요. 최 과장님 말씀처럼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현장이었지만 만큼 잡념이 들 새 없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웃음). 중국에서는 '관시(關係·관계)'가 중요한데, 선배님들이 신뢰를 쌓는

라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최: 중국인 특유의 '만만다(慢慢的·서두르지 않음)' 정신 때문에 시공·품질 관리를 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안전 의식도 부족했는데, 매일 작업 전 실시되는 안전 조화와 체조를 통해 중국인 근로자의 의식을 전환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최: 사실 중국에서는 건설 근로자의 작업 여건 및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요. 제대로 된 식당도 없이 바닥에 모여앉아 밥을 먹기 일쑤고, 추운 겨울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는 샤워실에서 씻기도 하죠.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과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근로자 숙소에 식당을 더 짓고, 보일러실도 만들었어요. 주말 및 휴일에는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해 간식을 챙겨주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우수 근로자에게 포상도 했죠.

전: 덕분에 다른 업체들보다 현지 근로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근로자도 현대건설 옷을 입고, 현대건설 작업모만 쓰면 일을 더 잘하

더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웃음).

동고동락했던 현장 식구들

전: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우리 회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현지 업체 모두가 제법 친해졌어요. 4단계 중 가장 큰 프로젝트였던 클린룸 300mm 증설 공사를 완공한 후 체육대회를 가졌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최: 하루 중 잡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현장 직원들과 함께 보냈어요. 설날 같은 명절도 함께 보내다 보니 현장 직원들끼리 더욱 끈끈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전태연 대리와는 추억이 많은데요. 중국어 과외 선생님을 구해 퇴근 후 사무실에 남아 함께 공부했던 것, 계림으로 여행을 떠났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전: 입사한 지 1년 남짓한 제가 현장 근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최기선 과장님 덕분이었어요. 야근 끝나면 '치맥'을 휴가 다녀오시면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아주 큰 힘이 됐죠.

전: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떠오르네요. 완공된 지 꽤 된 현장이어서 UCA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지만 자주 모이지는 못해요. 지면을 빌려 현장의 일원으로 받아주시길 김영인 현장소장님과 공무팀장이셨던 김용성 부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또 함께 숙소 생활을 했던 장창의 부장님과 최기선 과장님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준 베이징지사 외국인 직원 조흥단·김해란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최: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우시공장 공사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에서도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현장이었어요. 김재경 전무님을 비롯해 김영인 소장님, 김용성 부장님, 장창의 부장님, 김민희 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큰 행운이었어요. 조만간 좋은 자리에서 뵈면 좋겠습니다(웃음).



건축기술지원실 최기선 과장

건축국내사업실 전태연 대리

CITY

베이징은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다. 798예술지구에 이어 751 D-파크까지 현대예술과 디자인을 선도하는 지역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2013년에는 복합쇼핑몰 파크뷰 그린 팡차오디가 개관해 베이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됐다. 글=정일주 <월간 퍼블리카트> 편집장



베이징 시내 전경.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끊임없이 오가는 자동차들이 중국의 변영을 보여주고 있다.

창의도시 ㉓ 중국 베이징

압도적 규모와 볼거리로 승부하는 베이징

대륙의 광활함으로 따지자면 중국을 따라갈 수 없고, 그중에서도 수도 베이징은 규모로나 사회경제적으로나 막강함을 자랑하는 도시다.

베이징에는 중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만리장성, 자금성, 천안문광장, 서태후의 여름 별장 이화원 등 세계적인 문화유적이 있는가 하면 초대형 스크린 양옆으로 쇼핑몰이 길게 뻗어 있어 유럽 중세도시의 광장을 연상시키는 '더 플레이스'처럼 변화한 쇼핑타운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건축과 다이내믹한 요소들로 꽉 차 있어 결코 지루하지 않은 도시 베이징에는 베벌리힐스에서나 볼 법한 수역원에 달하는 명차들과 곧 엔진이 운명할 것 같은 낡은 픽업 트럭이 혼재돼 있고, 최첨단 시설로 무장한 건축 뒤편엔 허름한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민 멋쟁이가 있는가 하면, 러닝셔츠에 구깃거리는 반바지 차림의 사람도 많다.

798예술지구와 751 D·파크

베이징은 미국 뉴욕의 소호에 버금가는 798예술지구로 화제를 모았다. 베이징 차오양구 내에 1950년대 지어진 60만㎡의 거대한 군수공장지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무렵 갤러리, 작가 작업실, 카페 등이 곳곳에 들어선 세련된 예술특구로 탈바꿈한 것이다. 군수산업이 침체되면서 점차 활기를 잃고 텅 비어 있던 공장지대는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중국의 현대예술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성장했다.

베이징은 798예술지구에 이어 인근의 751 D-파크(디자인 파크) 또한 본격 활성화되고 있다. 751D-파크는 패션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2011년부터 시작된 '베이징 디자인 위크(Beijing Design Week-BJDW)'가 매년 열리고 있다. 이곳에 기업과 기관, 글로벌 브랜드의 디자인센터 등을 전략적으로 영입하며 세계적인 디자인 요람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현대미술·디자인 선도... '녹색과 예술의 결합' 팡차오디, 베이징 랜드마크로 부상

긴 호흡, 강렬한 인상의 팡차오디

완벽한 퓨전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철저한 계획까지 이 모든 요소로 뚝뚝 뭉친 베이징 한복판에 파크뷰 그린 팡차오디(Parkview Green FangCaoDi·이하 팡차오디)가 있다. 팡차오디가 들어서면서 차오양구는 명품과 레저, 음식과 문화 등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체로 손꼽히게 됐다.

2013년 4월, 홍콩의 부호이자 파크뷰그룹(Parkview Group)의 조지 왕(George Wong) 회장은 세계 각계 VIP에게 팡차오디를 선보였다. 호텔과 상점, 오피스 빌딩까지 현대인의 모든 요구를 담고 있는 이 공간은 투명유리로 된 독특한 피라미드 외관 아래 4동의 독립된 건축물로 구성돼 있다.

팡차오디는 '녹색과 예술의 결합'을 모토로 건설된 만큼 다양한 친환경 건축기술이 적용됐고, 내·외부 곳곳에는 진귀한 예술품이 놓여 있다. 100개의 호텔 객실은 각기 다른 콘셉트를 갖고 있다. 3년의 계획과 5년간의 시공으로 완성된 팡차오디는 개관 2년여 만인 현재, 베이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파크뷰그룹은 초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과 에너지 절감을 필수 요소로 삼아 세계 각국의 전문기업으로부터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사들였다. 이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됐지만 '투자가 클수록 건축의 수명이 길다'는 철학을 지닌 조지 왕 회장은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조지 왕 회장은 "테크놀로지는 반드시 장기적인 사회적·생태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의 철학에 동감해 건물 곳곳에 햇빛을 받아들여 식물을 자라게 하고, 공기가 순환되는 구조를 완성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팡차오디는 미래주의, 구성주의 그리고 60년대 영국의 공동체 아키텍처(Archigram·팝아트적인 건축 경향)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건물은 무엇보다 베이징 중심지의 이미지까지 바꿔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강철 외골격 구조가 그대로 노출돼



현대적이며 미래적인 이미지를 풍긴다.

예술과 공간의 조화로 완성된 호소력

팡차오디가 명성을 얻은 이유 중 하나는 건물 전체가 예술작품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지 왕 회장은 살바도르 달리의 세계 제3위 컬렉터이자 현대미술 수집가로 유명하다. 그는 팡차오디를 살바도르 달리 수집관으로 꾸미고자 마음먹고 40여 개의 살바도르 달리 작품을 설치했다. 이외에도 마그리트, 피카소를 비롯해 앤디 워홀과 로이 리히텐슈타인 등 세계 각 지역 현대미술 대가의 작품들도 배치했다.

미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도 눈에 띈다. 이 공간은 조지 왕 회장이 직접 디스플레이한 것으로, 그는 자신이 하나하나 골라 구입한 작품이기 때문에 배치도 직접 한다는 자신만의 큐레이팅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조지 왕 회장은 결코 현학적이거나 개념적인 미술은 풀어놓지 않는다. 흥미와 전문성을 겸비한 미술작품만으로 공간을 채우겠다는 것이 그의 다짐이다.

그는 팡차오디 개관 기념전으로 왕루엔(Wang Luyan)의 전시를 선보였다. 왕루엔의 작품을 모으는 것은 물론 오랜 세월 작가의 작업세계와 신작의 방향 등을 함께 고민해 온 왕 회장은 전시의 큰 틀을 짜고 세부 내



3 전면이 유리로 된 팡차오디 외관. 4 팡차오디 곳곳에는 많은 예술작품이 배치돼 있다.



1 군수공장에서 현대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한 798 예술지구. 2 베이징의 최대 변화가 왕루엔.

TOPIC

변화와 혁신 속에 기회가 있다. 우리 회사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현대건설 혁신대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출품된 47개의 과제 중에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글:정리=이희정

2015 현대건설 혁신대상 LEADING THROUGH INNOVATION!

'2015 현대건설 혁신대상'이 지난 1일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8월부터 1,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한 6편의 과제를 소개한다. 현재 주요 수상작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주관하는 '2015년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에 출품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하수 슬러지 처리기술 개발 연구개발본부+글로벌마케팅본부



에너지환경연구개발실

interview | 이교성 부장대우

Q.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양 본부의 본부장님을 비롯해 정말 많은 분이 축하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심의 결과 발표 후 심사위원 분들이 '발표도 좋았고, 향후 현대건설이 나아가야 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Q. 글로벌마케팅본부와의 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된 건가요?

글로벌마케팅본부에서 기술개발 소식을 듣고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구

상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기술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때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업했습니다. 그 결과 개발기간 단축뿐 아니라 글로벌마케팅본부에서 파악한 시장의 요구를 즉각 개발 과정에 반영해 완성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출품 후 2년이 넘게 걸리는 특허 취득도 출품 6개월 만에 취득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했습니다.

Q.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 시흥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사업을 기반으로 타 지자체와 협의 중인 여러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Q. 함께 수고한 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개발 착수부터 시장 적용까지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글로벌마케팅본부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해 주신 연구개발본부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하수 슬러지 처리기술'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비용과 에너지 소비량을 ▶처리공정 개선 ▶공정 내 폐열회수 ▶생산된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대폭 감소시킨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환경신기술 제448호에 지정된 이 기술은 기존 하수 슬러지 처리 방법인 건조기술과 동일한 슬러지 감량률을 보이면서도 건조 대비 40%의 소비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낮습니다. 또한 최종 생산된 '탈수케익'은 저위발열량이 2950kcal/kg로 연료화 성능이 우수하고, 높은 유기물을 함유한 '탈수여액'은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인공섬 호안 축조 설계 및 시공법 개선 인프라환경사업본부



KUSC 현장 복습 전경.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현장(KUSC)의 '인공섬 호안 축조 설계 및 시공법 개선' 사례는 ▶예산 절감 ▶공기 단축 ▶친환경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4800만 달러의 가치 창출은 물론, 현대건설만의 차별화된 해상공사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한층 도약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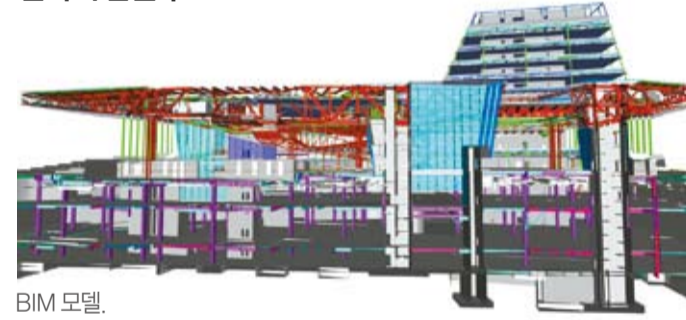
KUSC 프로젝트는 전체 연장 36.1km의 해상 교량으로 운전자의 안전과 비상시 대피를 위해 교량 사이에 2개의 인공섬을 매립해 관리 빌딩과 마arina(Marina)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당초 현장은

해상장비 모래말뚝 밀다짐(SCP) 시공 후 '사석 속 채움 호안 매립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자재 수급에 리스크가 예상돼 '모래 속 채움 호안 매립 공법'으로 시공 후 '육상장비 연약지반 처리 공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모래 매립재 활용을 극대화한 것으로 원가 절감뿐 아니라 공정을 단순화해 공기 단축까지 이루어낸 성공사례입니다.



'BIM기반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건설 프로세스 선진화 연구개발본부+건축사업본부



BIM 모델.

단순 시공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한 'Total Project Management'가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해당 과제는 BIM이라고 하는 3D 설계환경 기반의 세 가지 첨단기술 패키지를 활용한 건설 프로세스의 선진화 사례입니다.

▶시공 전 단계(Precon)에서 BIM이라는 3D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사 참여자들과의 조율을 통해 설계를 진행하는 'BIM 기반 설계 최적화 기술' ▶3D Laser

Scanner라는 첨단 장비를 통해 실제 현장 시공사항을 계속하고 BIM 모델과 연계해 검토할 수 있는 '첨단 계측 기술' ▶공기 단축을 통해 설계와 시공을 연결하는 'BIM 기반 설계 최적화 기술' ▶3D Laser

솔'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당사의 BIM 중장기 전략과 그 목적을 같이할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 방식의 체질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를 활용한 그린스마트 사업화 연구개발본부+건축사업본부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사진)는 현대건설이 건축 분야에서 개발 및 보유한 친환경 기술의 총집합체로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연면적 2470㎡(약 747평), 지상 4층 규모인 이 건물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Smart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및 각종 제어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건물에서 소비될 에너지를 예측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 이를 저장하거나, 다른 건물로 송전 또는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제어기술인 'Micro Energy Grid 통합운영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워크스마트! 우리가 만드는 변화와 혁신

경영지원본부



현대건설의 워크스마트 캠페인은 업무몰입을 통해 사무생산성과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를 높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한 것이 목표입니다. 3개월에 걸친 직원 인터뷰를 통해 현대건설의 '일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점검했으며,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담아 2015년 전사 5대 워크스마트 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외부 컨설팅, 타사 우수 사례를 단순 적용한 것이 아닌 우리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해 과제별 캠페인을 진행했고, 화면보호기 등을 자체 제작해 직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선단차수형 비배토 현장타설말뚝 공법 개발 및 적용

전력사업본부+연구개발본부



'현장타설말뚝'은 현장에서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으로 큰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탱합니다. '선단차수형 비배토 현장타설말뚝 공법'은 코트디부아르 아지도 발전소 현장(사진)의 '현장타설말뚝' 시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공법입니다. 당초 계획된 공법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한 결과, 굴착공 내부로 토사와 유수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해 말뚝 시공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전력사업본부 현장 직원과 연구개발본부 직원이 합심해 신공법을 개발, 말뚝 시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COLUMN

생각의 좌표 **음식 영화의 맛**

‘맛집 기행’의 시대를 지나 전문 셰프의 조리 과정을 소재로 삼은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TV의 영향인지, 서울 국제음식영화제와 푸드티비·푸드필름페스티벌도 첫 회를 치렀다. 개봉작 <아메리칸 셰프>가 연초 15만 관객을 모았고, 한국과 할리우드 외 국적 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5%를 밑도는 현황에서, 일본영화 <심야식당>이 원작 만화와 드라마만 못하다는 중평에도 소리소문 없이 13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음식의 이미지, 주방의 풍경 그리고 먹고 요리하는 행위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발화하는 호소력을 새삼 돌아켜 보게 되는 가을이다.

음식 영화의 묘미

음식 영화에는 우선 스펙터클이 있다. 음식을 소재로 삼은 상업영화의 다수는 미식 영화다. 예술품 경지의 고급 요리가 즐비한 만찬 테이블부터 한 보시기의 잘 익은 김치까지 스크린에 클로즈업된 먹음직스러운 음식 앞에서 시계를 보는 관객은 좀처럼 없다. 영화의 스펙터클은 그랜드캐니언 전경이나 외계인의 지구 침공처럼 거대한 장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보아 넘기던 사소한 대상을 조명하고 확대해 볼 특정 다수가 동시에 응시하고 탐닉하는 이미지도 영화의 탄생 이후 가능해진 스펙터클 중 하나다.

조리의 결과물도 결과물이지만 음식 만들 기란 드물게 공감각적인, 그래서 매우 영화적인 행위다. 조리 도구와 순서를 정하고 맛을 상

상하는 사고가 필요하고, 재료의 질감과 색이 시각과 촉각을 깨우며, 도마를 두드리는 칼과 끓는 냄비의 달걀거림은 청각을 자극한다. 식탁의 정경은 또 어떤가. 비단 ‘음식 영화’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장면을 빼면 성립되지 못할 영화의 편수는 헤아릴 수 없다. 특히 가족의 대화나 현저한 침묵이 식사 시간에 주로 표현되는 동아시아 영화에서 먹는 장면은 각별하다. 영화 <걸어도 걸어도>와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서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찍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행위와 누구와 무엇을 먹느냐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덧붙여 먹는 시간보다 식사를 준비하고 상을 치우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조리법을 가르쳐 주는 일은 공유의 행동이다. 먹는 동안은 입이 바빠 대화가 힘들지만 조리 장면은 영화적으로 재미있기도 하다. 요리하는 사람들은 보통 만드는 중인 음식 말고 다른 주제로 대화하기 마련이라 동작과 대사가 분리돼 영화가 주는 정보의 양이 풍부해진다.”

메타포의 음식

그럼 영화는 음식을 빌려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왔을까. 금욕적 사회가 배경이었던 <초콜릿> <바베트의 만찬>은 관능을 깨우는 섬세한 먹거리를 통해 건강한 욕망이 좋은 삶에서 얼마나 긴요한지 부각시켰다. <스시 장인 : 지로의 꿈> <빅 나이트>처럼 요리사의 장인 정신에 초점을 맞춘 영화도 주요 분과다. 전통 요리는 내셔널 컬처를 함축하는 예가 많은데 <음식남녀>에서는 중국요리를 통해 대만 신구 세대의 사고방식이 충돌하고 교섭을 벌인다. 그



13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일본영화 <심야식당>의 한 장면.

음식 영화에는 우선 스펙터클이 있다. 음식을 소재로 삼은 상업영화의 다수는 미식 영화다. 예술품 경지의 고급 요리가 즐비한 만찬 테이블부터 한 보시기의 잘 익은 김치까지 스크린에 클로즈업된 먹음직스러운 음식 앞에서 시계를 보는 관객은 좀처럼 없다

런가 하면 <라파피이>에서 요리는 별도의 주제를 실어나르는 매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주제다. 무려 생쥐를 사람과 협조하는 셰프로 캐스팅하고 소박한 가정식을 소울 푸드로 제시한 <라파피이>는 요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이 결코 위대함을 꺾아먹지 않는 예술이며 협동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달콤쌔름한 초콜릿>은 우리가 음식 영화에 질리지 않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 이 영화의 주인공 티타는 만드는 음식 하나하나에 다양한 감정을 불어넣는데 그녀에게 초대된 사람들은 맛을 보는 순간 각각의 정서에 정확히 교감한다. 우리는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는 본인의 감을 의식하지만 날씨와 음식 맛에 대해서는 타인과 온전히 통한다고 <적어도> 믿는다.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의 식당에서 가짜 오르가슴을 흉내내는 샐리를 보며 “저 여자가 먹는 걸로 쥐요!”라고 확신에 차 주문하던 노부인을 추억해 보라.

난 음식 영화에 대한 허기를 느낀다. 얼마 전 만난 박찬일 셰프는 군침 도는 주방 구경을 포기하고 노포를 지켜온 식당 주인들의 구슬에 집중할 인터뷰 영화가 없는 걸 아쉬워했다. 빵집 아들로 자란 김연수 소설가는 “맛있는 음식에는 맛있는 대로 사연이 있다”는 말로 생각 거리를 안겼다.

지난 5월 개봉한 <잡식 가족의 딜레마>는 식재료가 되기까지 동물에게 강제되는 고통과 기호음식으로 인간이 얻는 만족을 비교하자고 제안했다.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어떻게 주고받으며 살고 죽을 것인가의 선택과 가장 밀접하다. “좋은 음식을 먹는 일은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다.” <빅 나이트>의 과묵한 셰프 프리모가 남긴 대사를 다시 음미한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혜리 <씨네21> 기자



음식을 예찬하는 말과 영상의 성찬 속에서 나는 문득 위에 쓴 익숙한 매혹들을 배제한 별

현견인의 창 **가을날 정오의 단상**

절기상 완연한 가을이 왔다는 백로가 지나고 추분과 추석이 코앞입니다. 한낮의 햇살이 산책하기 알맞은 이 계절에 사우 여러분은 황금시간이라 일컬어지는 점심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짬을 내어 공부에 투자하는 자기계발파, 휴게실에 앉아 스마트폰 삼매경인 커뮤니케이션파, 테이크아웃용 일회용 컵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수다파 등 나름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하고 계신 줄 알지만 혹시나 식사 후 사무실에서 모자란 잠을 보충하던 습관(?)이 아직 배어 있다면 회사 주변 명품 산책 코스를 소개할까 합니다.



1 원서동 고회동 가옥의 중정.
2, 3 뒷마루와 대청을 실내처럼 바꾼 춘곡 선생의 작업실.

원서동 명품 고택, 고회동 가옥

본사 사옥 옆 스포츠센터를 지나 창덕궁 돌담을 따라 600m 즈음 직선으로 올라가면 춘곡(春谷) 고회동 선생의 가옥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회동 선생은 조선 말 역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외국 문물을 일찍 접했다고 합니다. 한성 외국어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웠고, 을사조약 후 서양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1908년 23세에 일본 동경예대로 유학해 이후 본격적으로 서양화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1914년 잡지 <청춘>의 표지를 장식한 그의 그림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로 기록돼 있으며, 대학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장자관을 쓴 자화상’(1915년, 동경예대 소장) 역시 한국인의 정체성을 당시 일본에게 일깨워준 주요 작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선생은 귀국 후 금전적 문제와 서양문화에 대한 주변의 눈총으로 인해 1927년 이후 다시 동양화로 전향하고 맙니다.

원서동에 위치한 고회동 가옥은 입구에 자리 잡은 안내 팻말에 적혀 있듯 1918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춘곡 선생이 직접 설계한 집입니다. 그는 이 집에 41년간 거주하며 미술교육자, 행정가, 운동가, 예술가,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등록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되기도 한 이 명품 한옥은 육당 최남선, 위창 오세창 등 당대를 대표하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심시일반으로 술과 음식을 싸들고 와 ‘일기회’란 정기 모임을 가졌던 아지트로 유명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고회동 선생과 친구들은 예술과 인생을

논하고 민족의 앞날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근대 한국문화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고회동 가옥은 전주의 학인당, 안동의 지례촌 등 전통 기와 고택을 축소된 느낌과 근산의 히로스가옥과 같은 적산가옥 분위기가 섞인 ㄷ자형 배치가 특징입니다. 작은 중정을 중심으로 둘러싼 긴 복도와 유리문, 뒷마루와 대청을 실내처럼 바꾼 작업실 등 독특한 가옥구조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우리나라 근대 주택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곳에 전시된 고회동 화백의 그림과 예술품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고요.

우리의 몸은 칼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D에 의해 건강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타민D는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80%는 피부를 통해 합성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사내식당에서 점심을 즐긴 후 고회동 가옥까지 왕복 20여 분만 걸는다면 우리 몸이 필요한 비타민D의 하루 적정 농도인 100ng/mL를 햇빛으로 충분히 섭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건강 효과는 물론 미술 감상, 건축 공부까지 함께 하니 일석삼조 이상의 효율적인 점심시간이 될 것입니다.

‘맹견도’에 얽힌 에피소드 하나

마지막으로 춘곡 선생에 대한 네거티브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50세 전후의 사우들이라면 어린 시절 미술교과서 실린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옆드린 그림을 기억할 것입니다. 1918년 고회동 선생은 어느 고가에 들렀다



‘맹견도’, 작자 미상.

가 ‘맹견도’ 한 점을 장지문 속에서 발견하고 당대 최고의 화가들과 감정을 합니다. 미세한 털을 묘사한 붓놀림, 투시법의 사용 등 기교와 사실성이 ‘단원 김홍도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 단정하던 그는 단원의 자(子)인 ‘사농’이란 낙관을 찍어 화상(畫商)에게 넘깁니다. 이후 화상은 덕수궁 미술관에 당시 화폐로 20원의 거금을 받고 그림을 팔고, ‘맹견도’는 일반에 공개된 후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됩니다. 물론 이 그림은 훗날 단원의 작품이 아닌 것이 밝혀지고, 낙관도 가짜임이 판명돼 수십 년째 ‘작자 미상’으로 창고에서 잠자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후 고회동 선생은 양심의 가책 때문인지 그 돈으로 장안의 요정집을 순례하며 선생이 좋아하던 술을 싣지 마시며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선생에게 ‘최초의 수식어가 하나 더 붙게 되나요?’ 한국 최초의 그림 사기꾼’이라고 말입니다.

[사내필진 1기] 이태기 부장 / 품질혁신실



PEOPLE

심영순(74)씨는 본명보다 '옥수동 요리 선생님'으로 더 유명하다. 장·차관 부인이나 재력가의 며느리와 딸을 비롯해 그로부터 요리를 배운 제자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시간뿐이라는 심씨를 만나 러 오전 10시에 찾아간 기자에게 황기·오가피·인삼을 넣고 찐 편육을 권했다. "겉절이에 꼭 싸먹어, 나는 평생 매끼를 이렇게 먹고 살아. 내가 임금님보다 낫지?" 글=이영지 (중앙일보) 기자 / 사진=김경록 (중앙일보) 기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식대첩> 심사위원·요리연구가 심영순

“미모는 한때예요, 손맛은 평생”



친정 어머니의 '음식 대첩'

1940년 5월, 서울 신당동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아들 둘을 낳아마자 떠나보낸 어머니는 딸아이가 반갑지 않았다. 홍수가 나서 집이 물에 잠겼던 날 어머니는 큰딸에게 “들어가서 이불이나 한 채 더 꺼내라”고 했다. 놀라서 뛰어들어간 큰언니가 동생을 업고 나왔다.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두 명의 언니들과 달리 심씨의 유년시절은 혹독했다. “세 살 때부터 콩나물에 물을 주고, 김장철이면 어머니 옆에 앉아 시키는 대로 고춧가루를 뿌려서.” 심씨가 고등어를 구워 상에 올리면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걸 누가 먹니, 개나 갖다 줘라”라고 모질게 말했던 어머니다. 간을 못 맞추면 부엌에 가 다시 만들어 온 나물 반찬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심씨는 그게 서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봐” 생각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잔칫날이 되면 수십 명의 찬목이 대청마루에 둘러 앉아 전을 지지고, 고기를 재우고, 과일 청을 빻었다. 녹두 빈대떡, 생선전, 튀김... 뭐든 최소 한 광두리씩 만들었다.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대단했다. 지금 돈으로 200만원 하는 민어 한 마리를 짐꾼이 마당에 내려놓으면 어머니는 직접 배를 가르고, 회를 뜨고, 뼈를 발라냈다. 심씨는 어머니가 진두지휘하는 ‘음식대첩’ 현장을 가까이서 보고 자랐다. 잔치 후에는 일하는 사람, 동네 사람까지 불러 고루 나누어 먹게 했다. ‘대첩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라’는 게 어머니의 철학이었다.

맵고 짠 한식에 실망하다 궁중음식 만나

심씨가 요리 선생님의 길을 걷게 된 건 우연한 기회였다. 20대 초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자신의 집에 온 교인을 위해 식사를 대접했다. 심씨의 요리에 반한 그 교인의 입을 통해 요리를 잘한다는 소문이 났다. “처음에는 한식에 관심이 없었어. 매일 먹으니 특별할 게 없잖아. 오히려 서양 요리를 가르치면 반응이 좋길래 그쪽에 관심이 컸지.” 그녀는 요리학원에 등록해 일식·중식·서양식 요리를 3개월씩 배웠다. 또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배우기도 했다. 부산·김해·영천·울산·경주... 맛있는 음식과 독특한 식재료가 나는 곳을 전부 찾아갔다. “한 번은 전주에 갔지. 식당 심수 곳에서 비빔밥도 먹고, 한정식도 먹어봤어. 반찬은 스무 가지가 넘는데, 양념이 하나같이 빨갛고 달아서 다 같은 맛이라 실망했지. 하지만 지역별 식재료를 알게 된 건 큰 수확이었어.”

실망감을 안고 돌아온 심씨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건 궁중음식이였다. 당시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이자 조선왕조궁중음식 2대 기능보유자였던 고(故) 황혜성씨가 매달 자택에서 발표회를 열었다. 심씨를 포함해 요리에 관심 있는 학생 5~6명이 모여 수업을 들었다. 황씨는 조선왕조 마지막 주방상궁 고 한희순씨에게 궁중 음식을 전수받았다. 심씨는 황씨를 통해 음식은 맛이 전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역사를 알고 나니 같은 음식도 새롭게 보였다. “음식 문화가 가장 풍요로웠던 때는 여왕이 많았던 신라시대였어. 해산물과 야생 채소가 지척에 있는 자연환경도 한몫했지. 백제는 쌀이 풍족해 맛있는 술이 많았고, 고려는 밀과 메밀이 많이 났던 나라야. 지역 음식의 뿌리, 왕실 음식의 기초를 배우며 한

식과 진짜 친해졌지.” 심씨는 궁중음식과 역사 속 음식을 현대인이 조리하고 먹기 편하도록 연구하는 것, 그게 자신의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구절판, 삼선탕, 국화구좌(전골) 등 일반인이 집에서 하기 어려운 요리를 각색해 가정 요리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했다. 재력가 부부 이혼 막아준 요리 수업 70년대 말 서른 살 이후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요리 수업에 나섰다. 내로라하는 재력가의 며느리와 딸, 장·차관 부인과 대학총장 부인도 모두 이때 가르쳤다. 집으로 매일 다 른 자동차가 그를 모셔가기 위해 왔다. 토요일·캐딜락 등 안 타 본 외제차가 없었다. 그때 번 돈으로 심씨는 이촌동에 있던 10평짜리 아파트를 팔고 현재의 동빙고동 집을 사서 헐고 다시 지었다. 집 수리비는 인세로 충당했다. 그녀의 ‘첫 책’이었던 오븐 부록 덕분에 넉넉한 인세가 입금됐던 것이다. “당시 빵 굽는 오븐이 유행이었어. 그 오븐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부록 요리책을 만들었지. 오븐이 너무 잘 팔려 인세로 집을 고친 셈이야.” 정·재계 인사들을 가르쳤지만 그녀는 기죽지 않고 행동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보고 배운 덕이었다. 엄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매사에 분명했다. 재벌들은 심씨의 그런 모습을 높이 샀다. 심씨는 요리만 가르친 게 아니다. 수업 시간보다 오래 가정 상담을 해준 적도 여러 번이다. 직접 요리사로 일해주시기도 했다. “지방의 재력가 집안에 시집간 이가 있었어. 서울대 못 나왔다고, 친정이가 가난하다고 시댁 식구들한테 구박받으며 살았지. 어느 날 시아버지가 700명 남

우연히 대접한 손님 입소문으로 요리 수업 시작

어려운 궁중음식 누구나 손쉽게 하도록 연구

는 손님을 초대할 테니 잔칫상을 차리라고 한 거야. 올 것이 왔구나, 사색이 되어 나에게 전화를 했어. 그날 행사 음식은 내가 다 만들어줬어. 며느리가 요리한 것처럼 꾸미고, 나는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날 이후로 두고두고 칭찬받으며 지금도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지.”

대를 이은 요리 연구의 길

수업을 요청하는 사람이 늘어나자 심씨는 88년 옥수동 극동아파트 상가에 요리 학원을 열었다. 지금까지 가르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 여전히 연락하는 제자도 있고, 고인이 된 제자도 있다. 2000년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추천사를 쓴 『최고의 우리 맛』을 출간했다. 같은 해에는 EBS (최고의 요리비결)에 출연해 그녀의 비밀 레시피와 양념장

만드는 법을 강의했다. “이대·연대·서강대 여자 교수만 모아 가르친 적이 있어. 다들 유학파에 한식이라고는 잘 몰랐지. 미국에서는 햄버거만 먹어도 흡이 안 됐는데, 한국에 오니 남편들이 한식을 해달라고 조르더라. 바빠 죽겠는데 남편이 한식을 먹고 싶단니가 어쩔 수 없이 요리를 배우러 온 거야.” 한식의 기본인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이 많이 간다. 양념장 만들다가 준비 시간을 다 놓친다는 게 한식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2004년 그는 수년간 연구해 자신이 만드는 양념을 계량화해 ‘향신양념’이라는 상품을 개발했다. 무·배·마늘·양파·생강·대파 등 한식 양념장에 꼭 들어가는 채소와 과일을 모은 즙이었다. 서양음식을 위한 셀러리즙·당근즙·양파즙도 개발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즙 선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심씨의 네 딸 중 두 딸이 어머니의 재주를 물려받았다. 큰딸 나경(53)씨는 심씨의 요리 전수자이자 ‘옥수동 요리 연구원’ 부원장이다. 넷째 딸 윤정(44)씨는 향신양념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나베S&F의 대표다. 윤정씨는 이탈리아에서 8년간 요리 공부를 했다. 먼 곳에 있는 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심씨의 첫 번째 인사는 “잘 먹었니?”였다. “내 나이가 벌써 일흔넷이야. 남편과 사이 좋고, 아이들 잘 자랐고, 사람들 많이 가르쳤으니 아쉬울 게 없어. 한 가지, 어머니 음식이 그리워. 특히 편육을 잘하셨거든. 황기·오가피·매실·인삼 등 갖은 재료를 넣어 삶는 법도 어머니께 배웠지. 오늘 내가 만든 두꺼운 편육을 보면, 우리 어머니 하늘에서 화내실 거야. 누가 먹겠느냐고.”

국내 요리 연구가 계보

<p>한희순 1889~1972</p> <p>조선시대 마지막 주방 상궁. 13세 때 덕수궁 나인으로 일을 시작했다. 경복궁·창덕궁에서 고종과 순종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다.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1대 기능보유자가 됐다.</p>	<p>강인희 1919~2001</p> <p>흥인군 종부 김정규 여사와 순정효 황후 윤씨의 율계 조면순 여사에 게 반가 음식을 배웠다. '한국의 맛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한국 요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84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p>	<p>황혜성 1920~2006</p> <p>한희순씨로부터 궁중음식을 배웠다. 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2대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궁중요리를 현대화시킨 공로로 86년 교육훈장 목련장, 90년 문화훈장 보관장을 받았다.</p>	<p>하선정 1922~2009</p> <p>54년 종로에 서울 최초의 요리 학원 '수도 가정 요리 학원'을 설립했다. 본인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어 김치·젓갈 등 다양한 식품을 상품화했다.</p>	<p>한복려 1947~</p> <p>조선왕조 궁중음식 연구가이자 황혜성씨의 장녀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만찬 메뉴 개발에 참여했다. 드라마 (대장금) 요리 자문을 맡기도 했다. 현재 궁중음식연구원장. 200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p>	<p>정길자 1948~</p> <p>한복려씨와 함께 200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병과) 3대 기능보유자로 지정됐다. 현재 궁중 병과 연구원장이다.</p>
--	--	---	--	---	---

CULTURE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뜰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보 신문)에서는 보다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소개한다. 글=임영현



한국민속촌 농악 공연.



남산골한옥마을 세시맞이 행사.



서울대공원 '동물원 한가위 한마당'.



경주세계문화엑스포-실크로드 경주 2015.

추석 나들이, 어디로 갈까?

한 눈에 보는 2015 전국 추석 '잔치'

남산골한옥마을 '오(五)대감 한가위 잔치'

9월 27~28일 이틀 동안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오(五)대감 한가위 잔치'가 열린다. 민속놀이, 전통공연 등 방문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70, 80년대 골목놀이와 <로봇 태권 V> <영심이> 등 추억의 만화영화 상영회도 진행된다. 천우각 무대에서는 '오빠는 풍각쟁이야' 같은 1930년대에 유행한 코믹송 '만요'와 옛가위 퍼포먼스, 민요 등 신명난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 일정 9월 27-28일
- 문의 02-2261-0501
- 위치 서울시 중구 퇴계로 34길 28(필동 2가)

서울대공원 '동물원 한가위 한마당'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광장에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동물원 한가위 한마당이 펼쳐진다. ▶전통민속놀이마당 ▶동물문화컬러링마당 ▶추석소원바람마당 ▶가족노래자랑마당 등이 열린다. 특히 민화에 나오는 동물을 색칠(컬러링)하는 동물문화컬러링마당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행사 기간 동안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는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정 9월 27-29일 오후 1-5시
- 문의 02-500-7335
- 위치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막계동)

한국민속촌 '한가위 송을씨고'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에서 진행되는 '한가위 송을씨고'는 전통 세시행사와 이색 특별공연으로 꾸며진다. 퓨전 거북놀이 퍼레이드 '한가위 풍년행렬'과 코믹마당극 '한가위 마을잔치'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성주고사 ▶송편 빚기 체험 ▶콩서리 구워먹기 ▶전통 농기구 체험 등 옛 모습 그대로의 전통문화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한복 착용 시 자유이용권 최대 50% 할인.

- 일정 9월 12-29일
- 문의 031-288-0000
-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2015 국토정중앙 별☆축제

이번 한가위에는 올해 보름달 중 가장 큰 '슈퍼문(Supermoon)'이 뜬다. '슈퍼문'은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져 달이 크게 보이는 현상.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국토정중앙천문대는 9월 26일 '2015 국토정중앙 별☆축제'를 열고, 슈퍼문 및 별자리 관측, 과학 체험 등을 진행한다. 게다가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다. 축제 관람과 함께 당일 선착순으로 운영하는 천문대 캠핑 스테이도 이용하면 좋을 듯하다.

- 일정 9월 26일 오후 1-10시

- 문의 033-480-2586
- 위치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국토정중앙로 127

전주한옥마을 강강술래축제



9월 28일 전주한옥마을 강강술래축제가 펼쳐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참가자 전원이 한복을 입고 전주천에서 즐기는 강강술래와 한옥마을 길거리퍼레이드. 참가자가 퍼레이드의 출연진이 되어 즐기는 체험형 축제로 마련된다. 한옥

마을 100여 곳에 총 5000만원 이상의 경품을 찾는 보물찾기도 진행된다. 참가비(한복 지참 시) 5000원, 한복패키지티켓 1만7000원.

- 일정 9월 28일 오후 1-10시
- 문의 063-232-3631
- 위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노송동)

대구시시설관리공단 민속놀이 한마당

대구광역시 도심에 위치한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 경성감영공원에서 '민속놀이 한마당'이 9월 26-28일 펼쳐진다. 굴렁쇠, 팽이치기, 투호놀이, 화살 쏘기 등 여러 가지 민속놀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또한 26-29일 달성공원관리사무소, 27일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앞 특설무대에서도 민속놀이 행사가 열린다. 한편, 29일 오후 7시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는 국악 공연도 즐길 수 있다.

- 일정 9월 26-28일 오전 10시-오후 5시
- 문의 053-254-9401
- 위치 대구광역시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 경성감영공원

제61회 백제문화제

제61회 백제문화제가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충남 공주와 부여에서 개최된다. ▶웅진성 퍼레이드 ▶해상강국 대백제 ▶백제등불향연 ▶백제마을 '고마촌' ▶백제역사문화행렬 ▶백제장군 출정식 등 대표 프로그램과 함께 웅진백제 4대왕 추모제, 전통문화 공연도 진행된다. 금강에 설치한 280m 부교를 건너는 이색 체험도 마련된다.

- 일정 9월 26일-10월 4일
- 문의 041-635-6980
- 위치 충남 공주시 금벽로 368(금강신안공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정림사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실크로드 경주 2015

천년고도 경주는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다. '유라시아 문화특급'을 주제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및 경주시 일원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실크로드 경주'가 오는 10월 18일까지 열리기 때문. 신라로 이어지는 실크로드의 역사,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K-그랜드 세일 경북특별주간'으로 입장권·3대 공연·체험 비용 등을 15~60% 할인받을 수 있다.

- 일정 8월 21일-10월 18일 오전 9시30분-오후 7시 (주말은 오후 8시까지)
- 문의 054-748-3011
- 위치 경북 경주시 경감로 614(천군동)

201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가산오광대 놀이, 봉산탈춤 등 한국 탈춤은 물론 외국 탈춤까지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201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탈춤공원과 하회마을에서 개최된다. '어릿광대의 꿈'을 주제로 신명난 탈춤 공연이 계속 이어진다. 특히 9월 26일, 30일, 10월 1-3일 오후 6시30분 시민과 관광객, 공연팀이 함께하는 퍼레이드 '탈놀이대동놀이'는 축제의 백미가 될 것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안동탈춤공원과 하회마을에서 개최된다. '어릿광대의 꿈'을 주제로 신명난 탈춤 공연이 계속 이어진다. 특히 9월 26일, 30일, 10월 1-3일 오후 6시30분 시민과 관광객, 공연팀이 함께하는 퍼레이드 '탈놀이대동놀이'는 축제의 백미가 될 것이다.

- 일정 9월 25일-10월 4일
- 문의 054-841-6397
- 위치 경북 안동시 옥사로 239(운동동)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추석 행사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본영이었던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에서 민속놀이 체험과 무예시범 등 다양한 추석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통놀이 체험장인 야장방 앞마당에서는 널뛰기, 윷짐,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고, 28일과 29일 양일에는 세병관 마당에서 조선수군 무예시범을 관람할 수 있다. 추석 당일인 27일에는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로 개방하며 한복 착용 시 연휴 기간 내내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 일정 9월 26-29일
- 문의 055-645-3805
- 위치 경남 통영시 세병로 27(문화동)

국립제주박물관 '추석 한마당'

국립제주박물관에서 9월 26-29일 '추석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전통 민속놀이 체험 ▶추억의 놀이 체험 ▶풍속화 퍼즐 맞추기 ▶즉석 가족사진 촬영 ▶페이스페인팅 ▶떡메치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1488년 최부 일행이 제주 앞바다에서 표류한 뒤 중국을 거쳐 돌아온 여정을 기록한 『표해록(漂海錄)』을 오늘날 시각에서 살펴본 특별기획전 <조선 선비 최부, 뜻밖의 중국 건문> 관람도 가능하다.

- 일정 9월 26-29일 오전 9시-오후 6시
- 문의 064-720-8000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건입동)



Coming Soon! 10월에도 전국 축제가 풍성

결실의 계절 가을, 10월에도 전국에서 많은 축제가 열린다. 가을 나들이를 위한 간단 축제 정보를 소개한다.

- ① **진주남강유등축제**
일정 10월 1-11일 | 위치 경남 진주시 진주남강 일원, 진주성 등
- ② **금산인삼축제**
일정 10월 2-11일 | 위치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 ③ **봉화송이축제**
일정 10월 2-5일 | 위치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 ④ **한강서울세계불꽃축제**
일정 10월 3일 | 위치 서울시 여의도 한강공원
- ⑤ **영주풍기인삼축제**
일정 10월 4-11일 | 위치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변
- ⑥ **김제지평선축제**
일정 10월 7-11일 | 위치 전북 김제시 부랑면 벽골제 일원
- ⑦ **횡성한우축제**
일정 10월 7-11일 | 위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삼강동지 일원
- ⑧ **천안향타령축제**
일정 10월 7-11일 | 위치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
- ⑨ **강릉커피축제**
일정 10월 8-11일 | 위치 강원도 강릉시 남설천로 131
- ⑩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일정 10월 8-11일 | 위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 명성산 일원
- ⑪ **부산자갈치축제**
일정 10월 8-11일 | 위치 부산시 중구 자갈치시장 일원
- ⑫ **문경사과축제**
일정 10월 9-25일 | 위치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 ⑬ **정선아리랑제**
일정 10월 9-12일 | 위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아라리공원 일원
- ⑭ **부산불꽃축제**
일정 10월 23-24일 | 위치 부산시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 일원

ART

〈헤세와 그림들展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괴테 이후 독일 최고의 문인으로 추앙받는 헤르만 헤세의 미술 작품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해 완성한 전시다. 헤르만 헤세의 회화를 입체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헤세와 그림들展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빛을 든 문학의 거장

〈헤세와 그림들展 :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은 ‘화가’ 헤르만 헤세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 사후 53주기를 맞는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수레바퀴 밑에서』 『데미안』 『싯다르타』 『유리알 유희』 등과 관련된 채색화, 초판본을 비롯해 사진, 유품 등 총 500여 점이 선보인다. 더불어 헤세의 명화와 현대 기술이 만나 재탄생한 ‘컨버전스 아트’도 감상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화면을 모션그래픽을 활용해 디지털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밝은 색을 주로 사용해 따뜻함을 표현한 헤세의 작품들로 꾸민 이번 전시는 감성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헤세는 정신적 괴로움을 치료하기 위해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는데, 나이 마흔에 붓을 잡은 그에게 흰 캔버스는 생의 고통을 풀어내는 고백의 공간이자 삶의 위안을 얻는 안식처였다. 1, 2차 세계대전을 두고 조국 독일과 겪어야 했던 갈등부터 부친의 사망, 아내의 정신분열 증세와 아들의 입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픔을 겪은 그는 그림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에게 그림은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 됐다. 헤세의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깊은 포용을 받는 것 같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앤디 워홀의 실크스크린 판화 〈Tribute Hermann Hesse〉와 같이 헤세에게 바치는 여러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어린이의 체험학습을 위한 사진 촬영과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7)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2015. 5. 2 - 11. 1 | T 1661-0553



- 1 <클링조어 발코니> 1931년.
- 2 <카사르사 앞의 포도나무> 1931년.
- 3 <에바라기 화단> 1933년.
- 4 <카사카무치 회전계단> 1926년.
- 5 <목련> 1928년.
- 6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전시장 내부 전경.

HESSE'S DRAWING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

현장에서 사원증을 제시하시면 2000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9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인 최대 4매까지 할인 제공)